

# 광주·전남, 올해 도시숲 51곳 조성한다

## 미세먼지차단숲·바람길숲 등 578억 투입 대기오염물질 저감·도시민 쉼터 활용 기대

광주시와 전라도가 올해 578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 51곳을 조성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숲 조성사업 10개 중 국비보조사업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산림청의 기후대응기금 등 확보된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총 1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서구 광주철도 주변 등 미세먼지차단숲 사업 3곳 ▲운전초교 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곳 ▲문화전당역 등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2곳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4곳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자치구와 협의 후 대상지를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비로 추진하는 미래숲 조성 등 5개 사업은 18곳에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5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소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조사한 후 제출한 2022년 5개 사업 대상지 36곳 중 18곳을 선정할 바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계림동 1.815번지 등 녹지한평늘리기사업 8곳 ▲회재로(제2순환로-매월유통센터) 녹도조성사업 1곳 ▲효천중앙로(미로공원-효천1로) 등 가로숲길 조성사업 4곳 ▲광주동초교 등 학교내 미래숲(명상숲) 조성사업 4곳 ▲양과동 213-1번지 정원조성사업 1곳 등

으로,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사업비를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고, 미확보된 시비 4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해 대상지를 선정할 후 가을공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 자치구에서는 대상지별 현장조사와 설계준비 등을 거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도 또한 각종 산업단지, 폐선부지, 주요 도로변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미세먼지 발생원 16개 시군 21곳에 373억 원을 들여 차단숲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북포 대양산단 2ha ▲광수 울촌산단 2.5ha와 국가산단 1ha ▲광양 제철소 4ha ▲순천 해룡산단 및 울촌제1산단 등 6.1ha ▲곡성 오곡폐선부지 2ha ▲구례 양정 죽산단지 1ha ▲화순 채광장 1ha ▲장흥 바이오식품단지 2ha ▲강진 칠량 농공단지 1ha ▲해남 구성지구 2ha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1ha ▲무안 남악철도변 3ha ▲함평 동함평산단 2ha ▲

장성 황룡강 1ha ▲안도 완도항 1.7ha ▲신안 증도 4ha 등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25.6%,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40.9%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ha의 숲은 경우차 27대가 연간 내뿜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전남의 경우 연 6.2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신안 등 규모가 큰 대상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2050' 실현을 향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감효과 기능이 우수한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진 대규모 차단숲을 통해 맑은 공기로 순환·생산하는 도시의 허파 역할은 물론 도시민의 쉼터로서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 서삼석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 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 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 가격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은 제16조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일을 감안해 법 취지대로 적정 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돼 가격 회복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희재,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경력단절 지원 대상을



더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복귀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한차례만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서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심상정, 광주 사고현장 방문...일정 재개

### "수색 빨리 완료되길"...실종자 가족 위로 오늘 당 회의 참석...선거운동 복귀 전망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서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았다.

지난 12일 밤 돌연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선거 일정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일정으로 사고 현장을 찾아 주변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애타는 심정 이실 텐데 빨리 수색이 완료되기를 바란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는 가족들과 만남 이후 취재진에게 "마음이 쓰여서 내려왔다"며 "참사가 났는데 그대로 있기가 죄송해 실종자 가족들을 보러 왔다"고 절박하게 말했다. 이어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겠다"며 "그냥 (사고를 보고만) 있는 게 죄송해서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후보와 함께 현장을 찾은 강은미 의원은 "(심 후보가) 일정을 중단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4일째인 1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마친 뒤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고 (숙고에) 들어가기 전 사고가 나 내내 마음이 쓰이고 죄송하다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 (실종자 가족을) 보고 싶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치권이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7일 당 대표단-의원단 회의에 참석해 숙고 기간 정리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선거운동 일정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철 기자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7일 당 대표단-의원단 회의에 참석해 숙고 기간 정리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선거운동 일정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철 기자

## 서동용, 지역위원회 필승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지역이 지난 14일 오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당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흥영표 전 원내대표,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신동근 전 최고위원,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지역은 서동용 총괄선대위원장, 이용재(전남도의원), 김태근(도의원), 김길용(도의원), 김재무(전남도 체육회장), 김재휴(전 보성부군수), 박근표(전 YTN국장)가 공



동선대위원, 지역 시·군의원이 상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서 선대위원장은 "과거 대선을 돌아 보건대 호남의 민심이 당 후보 선출과 대선을 좌우해왔다"며 "호남에서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주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호남 출신들이 호응해야 골든크로스를 넘어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 다스코 | 쓸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스틸코(철근유통·가공)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